

완도금일고, 통일교육 체험학습 및 도시 문화 체험 실시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화 감수성 제고 위한 프로그램 2박 3일간 국립통일교육원 연계 통일교육 체험 운영

완도금일고는 지난 7월 17부터 19일까지 서울 및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2박 3일간 국립통일교육원 연계 통일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도시 지역에 한해 특별 지원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완도금일고등학교 전교생이 참여했으며, 역사 현장 및 문화 유적지 등을 방문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과 남북 대립과 관련한 평화 감수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프로그램은 크게 대한민국 역사의 올바른 이해와 남북 대립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사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째, 대한민국 역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를 문화재 유물 중심으로 살펴보고, '서대문 형무소', '덕수궁' 방문을 통해 일제강점기 국권침탈의 아픔과 일제에 필사적으로 저항한 선조들의 숭고한 의지를 느껴보았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의 가치를 느끼고 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아픔이 따랐는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기대한다.

둘째, 남북 대립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과 전쟁의 폭력성을 느끼기 위해 경기도 '파주 DMZ 일대' 방문과 '땅굴' 체험 등을 실시하

였다. 곳곳에 남아 있는 총탄의 흔적과 지뢰 주의 표지판, 무장한 군인들의 모습은 완도 지역에선 볼 수 없던 묘한 긴장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전쟁의 잔인함과 폭력성을 책으로만 그리는 것이 아닌 실제 참혹했던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몇몇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아직도 내뱉는 '전쟁 불사'라는 말에 대한 무책임함과 무지함을 느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프로그램 동안 '시정 관광', '청계천'을 거닐며 소외된 도시 지역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도시 문화 체험도 실시하였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쟁과 관련한 역사 현장을 다녀보니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민족의 비극이라고 확신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서대문 형무소, 땅굴, 전망대 등 유튜브 같은 매체에서만 보던 장소들을 방문하게 되어 뿌듯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프로그램을 신청하며 총 책임인 진행된 교사(역사과 송재근)는 "더운 날이라 많은 걱정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기획한 주제를 바탕으로 잘 배우고 체험해 주니 대

견스럽고 자랑스럽다.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주어지면 도시 지역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해보고 싶다."라며 취지를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영암초, 여름방학 SW캠프(드론, 코딩) 운영



영암초등학교는 올 해 늘봄학교 시범운영으로 지정되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안정감 있는 돌봄과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에는 방학 중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여가 시간을 보다 교

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늘봄 SW캠프'를 개설하였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본 캠프는 총 20일의 운영기간 동안, 2기수로 나뉘어 진행되며 한 기수당 40명씩 총 80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은 4차 디지털 산업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 교실과 코딩 교실이다.

드론 교실에서는 드론이 할 수 있는 일, 현재와 미래의 드론의 모습, 드론 사용의 예 등을 알아보고 드론의 비행원리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훈련한다. 시뮬레이션 훈련 후에는 실제 드론을 이용하여 기초 비행 훈련을 하며 장애물 통과하기, 코딩 드론 날리기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영암=조대호기자

해남 우수영초, 즐거운 방학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



해남 우수영초등학교는 여름방학기간에 어

공예·댄스·독서 및 스포츠 활동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는 때보다 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방중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유, 초 돌봄교실을 비롯하여 기초학력 지도를 위하여 매일 출근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스포츠 캠프 및 뮤지컬 캠프를 일주일간 실시하였다.

또한 돌봄교실에서는 특별 강사 선생님들을 초빙해 공예, 댄스, 독서 및 스포츠 활동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종 재료를 활용한 공예시간은 최고의 예

술품을 만들기 위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민화 그리기, 전통부채 위 감성 캘리그래피, 베지터블 가족공예, 냅킨아트 활동을 준비해주는 오남미 강사님은 "방학을 이용하여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친구들이 너무 복 받은 행운아들"이라며 열정적으로 집중하는 친구들을 응원하였다. 해남=기동취재본부

보성 벌교도서관, 연극 체험 운영

보성 벌교도서관은 지난 7월, 14일 2회에 걸쳐 밀알지역아동센터에서 연극인이 알려주는 연극 수업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사업의 일환으로, 밀알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연극 체험은 2권의 주제 도서를 선정하여 매 수업에 아이들과 함께 책을 낭독하고, 등장인물들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성=김덕순기자



매쓰투게더 방학 캠프의 일환

순천교육지원청은 최근 순천수학교육체험센터에서 관내 초·중학교 희망학생 70여명을 대상으로 '자연 속의 수학 메타버스 전시관 성과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2023. 매쓰투게더 방학 캠프의 일환으로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방학 기간 학생들이 순천의 낙안읍성과 선암사를 탐구하여 수학적 문제를 인식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캠프 기간의 성과들을 △포트폴리오 제작 △ 메타버스 가상 전시관 콘텐츠 생산

△학부모 대상 메타버스 가상공간 체험 등으로 창의성을 담은 결과물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은 "교과서 수학이 아닌 순천의 문화에서 수학적 원리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즐거웠다. 앞으로 생활 주변에서 수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임종윤 교육장은 "순천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교육 대전환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수학교육체험센터에서는 매쓰투게더



방학캠프를 시작으로 체험수학을 기반으로 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매쓰투게더 주말캠프'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기자

순천교육청 '자연 속의 수학' 메타버스 전시관 성과발표회 성료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